

## 폴리텍대학 기술봉사단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술을 나누다

- 업무협약·공동기술센터 설립 이어 학생 간 인적 교류로 협력 강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마르칸트 제4테크니쿰\*(Samarkand City No. 4 Technicum)에서 기술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 사마르칸트 제4테크니쿰: 한국 정부 ODA 사업으로 설립된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을 모태로 하는 교육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 총 10명으로 꾸려진 봉사단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 전기설비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한국문화 체험·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학생 간 유대도 넓혀갈 계획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024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현 사마르칸트 제4테크니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5년 현지 공동직업 기술교육훈련센터 설립, 올해 기술봉사로 양국 학생 간의 인적교류까지 우즈베키스탄과의 직업기술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기술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K-TVET\*\*의 가장 생생한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직업교육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K-TVET(Korea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전략기획국 대외협력부	책임자	부 장	강영아 (032-650-6664)
		담당자	차 장	고아라 (032-650-6665)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기술훈련원(현 사마르칸트 제4테크니쿰) 전경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제4테크니쿰 학생들이 한국문화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교수 및 학생들이 사마르칸트 제4테크니쿰에서 전공 실습 수업을 하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생들에게 전공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